

'가야문화 복원' 전북자존 시대 연다

남원시, 동부권 발굴조사·연구·정비사업 추진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가야문화권 조사 및 연구와 정비 사업을 통해 전북 동부권 가야문화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가야는 한국 고대사 규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백제나 신라에 비해 가야문화권의 조사, 연구와 유적 정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해 앞으로 발굴조사 및 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남원시는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을 비롯한 전북 동부권 가야 관련 지자체, 그리고 전북도와 함께 지난 11월 25일 봉화산 치제에서 전북가야 선포식을 갖고 만 천하에 전북가야를 선포한 바 있다.

선포식을 계기로 전북가야를 집중적으로 발굴, 복원하고 세계유산에 등재하여 전북가야를 전북자존의 시대를 여는 큰 축으로 삼아 가야문화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의 사적 승격을 통해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드높이고 수목제거 및 정비 등 유적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시 아영면과 인월면 경계에 위치한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출토 유물도 재치세력, 대가야,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남원 운봉고분을 중심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의 고대사와 고대 문화연구에 중요한 유적이다.

다음으로 조사 연구 기반 구축과 가야 역사 실체를 규명할 연구 활성화

를 위해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옥계동 제철유적, 수철리 제철유적, 장교리 갈마지기 고분, 봉화산 봉수, 고남산 봉수, 아막성 등 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해 유적을 지정하거나 정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북지역 고대문화와 실체규명을 위한 조사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야 문화유산 자립이 운영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치가 새롭게 규명된 경우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영남지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발맞춰 가야고분군도 확장 등재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남원시는 고대사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가야의 실체에 다가가기위해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영호남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가야와 관련한 중요 유물과 유적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치가 새롭게 규명된 경우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영남지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발맞춰 가야고분군도 확장 등재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남원시는 고대사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가야의 실체에 다가가기위해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영호남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올해 예산 25억여원 투자 확보

임실군은 오는 2018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을 대폭확보하고 조기집행을 통해 영농기반 확충 및 주민 편의 도모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올해 관정, 용배수로, 기계화 경작로 관련 예산은 2017년 20억이었으나 올해에는 총 25억여원을 확보했다.

현재 용·배수로 미 설치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웠던 29개소는 정비사업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형관정개발도 2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대형 농기계 진입이 어려웠던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12개소 3.9km 구간에 경작로 포장사업을 실시해 농산물 유통축진과 기계화농기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로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체력인증센터 연장 운영 실시

2014년 개소하여 4년 연속으로 운영 중인 남원체력인증센터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시비확보를 통해 1, 2월 연장 운영을 실시한다.

남원체력인증센터는 2017년 성인 및 어르신, 학생 5,064명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진행했으며, 22곳으로 출장측정을 나가 '국민체력100사업'을 진행하고, 총 5기의 체력증진교실 운영을 통해 체력수준이 낮은 시민이나 과제중으로 고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체력수준 향상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의료, 체육 통합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원, 보건소 등과 협업체를 구성했으며, 단 순히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진정한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2018년도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순항골체육관 뒤편 체력인증센터에서 1월 2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최저임금 해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적극

순창군,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 노동자 1명당 13만원

순창군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읍·면사무소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순창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11개 읍면사무소 내 전담창구 설치, 접수 서비스를 준비함과 동시에 협수막, 배너, 홈페이지, LED 전광판 송출 등 본격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또 오는 1월 8일에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대상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배천작진 자세로 초심 지킬 것"

심민 임실군수 신년사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2018년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시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임실군은 군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각별한 성원과 격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뤄내 미래임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역대 최초로 4000억 원 예산시대에 돌입하면서 나후와 소외가 아닌 풍요와 넉넉함이 함께 하는 대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또한 섬진강 댐 건설이후 5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3만 임실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열린 임실치즈 축제는 전국에서 45만여 명의 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대한민국 속의 임실'의 위상을 드높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교과와 조선의 개국살화를 동시에 담고 있는 성수산은 자연유양림을 군이 53억원을 들여 매입해 재확장도 준공되어 새해 첫 신입생 180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군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뜨거운 지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하늘의 뜻에 따르면 덕(德)이 쌓이고 천금을 얻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배천작진(配天作鎮)의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군민 여러분과 바라보며 더욱 약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가 뜨거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뿌리깊은 나무처럼' 아낌없는 사랑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다시한 번 기원드리며,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인 산림 휴양지로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래인재양성의 산실인 봉황인재학당도 준공되어 새해 첫 신입생 180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군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뜨거운 지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하늘의 뜻에 따르면 덕(德)이 쌓이고 천금을 얻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배천작진(配天作鎮)의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군민 여러분과 바라보며 더욱 약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가 뜨거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뿌리깊은 나무처럼' 아낌없는 사랑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다시한 번 기원드리며,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관 교량역할 나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 업무 등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확대 운영

완주공동체지원센터가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지원 및 도시재생 영역 업무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난 29일 완주군은 앞으로 완주공동체지원센터가 완주군의 '2025 소셜굿즈 플랜'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동력화와 더불어 민경강변 햇살가득 동창마을의 도시재생 선전에 따른 준비에 발맞춰 센터의 규모와 사업영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경제 1번지 완주'를 표방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조직개편을 강행한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3팀 체제에서 센터 사업과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을 총괄할 사무국장 직제를 부활시킨다.

또한 마을기업과 마을 및 아파트 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공동체육생지원팀과 완주군 사회적 경제조직 실태조사와 시책개발을 통한 완주형 사회적경제의 로드맵을 제시할 사회적경제지원팀, 그리고 도시혁신사업과 도시재생지역 주민교육을 담당할 도시재생지원팀 등 '1국 3팀' 체제로 1월부터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이들 위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연구 및 지원조사, 현장 활동가 양성, 공동체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에 관한 통합적 지원, 종합정보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도 힘을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센터의 업무확장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석 센터장은 "앞으로 센터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연구에 노력하고,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추진과 지원을 위해 민과 관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공동체지원센터가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지원 및 도시재생 영역 업무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완주군이 3월부터 이론과 체험을 결합한 어린이 역사 독서교실 '한국사냥 청의아카데미'가 3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도,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격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는 지난 29일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후천)를 방문해 대한적십자사-전라북도 협업 2017년도 하반기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이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진용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전북지회협의회 강영수 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계지회협의회 박영현 회장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VISION 2020'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와 전북도와의 공조적 파트너십을 통해 전북도 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

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을 실현하고자 기획되어 지난 10월부터 실시해 12월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전북도 15개 시군구로부터 저소득층 108가구를 추천받아 선정 추진했고, 김제시는 취약계층 긴급지원 추천대상 26가구 중 15가구에 사업비 총 3,05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겨울방학, 영어도서관에서 알차게"

완주군, 독서교실 등 행사 다채

완주군 둔산영어도서관이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알찬 방학을 선물한다.

지난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8년 1월 3일부터 이론과 체험을 결합한 어린이 역사 독서교실 '한국사냥 청의아카데미'가 3주간 진행된다.

또한 청소년 역사 독서교실 '근대사 청의아카데미'도 2주에 걸쳐 열린다.

이외에도 매주 월요일에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고 책 속에 등장하는 우리의 전통놀이를 배워보는 '그림책 속 전통놀이'를 운영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매주 화요일에는 집중력과 마음치유에 도움이 되는 초등 고학년용인 '복합아트 체험교실'이 매주 수요일에는 전 연령층이 관람 가능한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5편을 상영해 학부모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오인석 문화예술과장은 "자칫 무의미하게 보내기 쉬운 긴 겨울방학을 도서관에서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연령별로 나누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둔산영어도서관은 이밖에도 겨울방학 종료 후에 시작되는 불방학에 대비해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진로특강, 어린이 영어특강, 둔산 인형극, 생애주기별 맞춤형 강좌 등을 운영해 도서관을 배움과 소통의 구심점으로 꾸러갈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순창군, 81개소 중 5개소 적발

순창군은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2017년 점검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1개소를 정기점검 대상으로 삼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1개반을 투입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운영일지 미작성 등으로 무단방류 행위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접 수사에 남원지청에 송치했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군은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북도, 타시군과 합동점검을 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순창=이양원 기자